

공연 시작 전... 준비에 힘쓰는 직원들



**군** 민들에게 문화를 향유 소통·공감·동행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민족 대 명절 설날, 가족과 친지들과 오손도손 덕담도 나누어 할 황금 연휴이지만 내내 쉬지 못하고 묵묵히 군민을 위해 부안 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공연 하루 전이라서 그럴까? 늦은 밤에도 예술회관 소속 직원들과 스태프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리허설 준비에 매우 분주해 보였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에도, 기자의 눈에는 곳곳에서 땀을 흘리는 직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공연 당일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서두릅시다? 잘합시다." 설 명절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설날 그름날 부안군 예술회관 공연장에 긴장감이 풀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현철소장은 "설 기간 동안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동춘서커스' 공연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에게는 서커스의 옛 추억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아찔아찔한 곡예와 묘기를 통해 스릴감을 전달해 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직원들은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더 잘 보여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뽕생 내 가족처럼 안내하고 있었다.

신기한 묘기... 박력있는 퍼포먼스... 관객들은 '신났다'

서커스단원들의 열띤 무대에 남녀노소 '환호성'

**저** 녁 공연에는 남녀노소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많았다. 설 차례상 준비를 마치고 한숨 돌릴 겸 찾아온 대 가족들도 볼 수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대감이 가득했다.

500석이나 되는 좌석이 발디딜 틈 없이 꽉 매워졌고 있었고, 좌석에 앉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통로쪽에 줄지어 서서 서커스 공연을 지켜봤다. "아기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무대 위에 올라간 아이가 아장아장 재롱을 피우지만 그마저도 정겹고 반가웠다.

동춘서커스단은 90년 간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유일의 서커스 공연단이다. 무대는 80여 분 간 이어졌다. 부제는 초인의 후에. "우리도 기회만 주어진다던 태양의 서커스 못지않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열정을 비쳤고 부단한 연습으로 좋은 무대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얇은 비단 천에 의지해 매달려 아슬아슬한 묘기를 선사한 여성 단원에는 경탄이 이어졌으며 청년 단원들의 박력 있는 덩블링 퍼포먼스가 이어질 때는 환호가 이어졌다. 서커스 단원의 작은 실수에도 관객들은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남들 다 쉬는 명절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노고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힘든 점은 없었을까?

김수일 주무관은 "우리 같으면 평일보다 오히려 공휴일에 더욱 바쁘다. 평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학교, 가사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공휴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공연 등을 준비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연이 끝나고 퇴장하는 지역주민들이 예술회관 직원들에게 "좋은 공연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여태까지 쌓였던 피로감도 확 달아나고 아이의 말을 듣는 예술회관 직원들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다.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게하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휴일,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애쓰는 예술회관 직원들을 보며, 이것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부안=이옥수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